

‘광인’ 니체에서 ‘미래의 철학자’ 니체로

서거 100주년 맞아 관련서 쏟아져 나와...
니체 철학의 현대성에 초점 맞춰

니체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 그의 삶과 철학세계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니체의 철학을 그의 개인적 병력과 비교하는 흥미로운 책이 나왔는가 하면,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비조로 니체를 평가하는 책까지 출간됐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판본을 저본으로 삼은 《니체 전집》이 출간되기 시작했고, 국내 니체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서도 잇따라 출간돼 화제다.



천재에 대한 범인들의 사랑은, 칭송의 단계를 지나 우상화로 빠질 때가 많다. 니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니체 전공자들은 현재의 니체상이 니체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무분별한 추종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니체가 죽은 지 100년이 됐다. 최근 출간된 6종의 니체 관련서는 저간의 소문을 충분히 의식하며 기획된 것들이다. 따라서 스캔들에 휩싸인 ‘광인’ 니체를 21세기를 예고한 20세기의 철학자로 그 위상을 ‘복권’ 시키고 있다.

책세상, 《니체 전집》 출간해

니체를 전공한 소장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책세상’의 《니체 전집》 출간은 단연 눈길을 끄는 출판계의 ‘사건’이다. 번역 저본은 독일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니체 비판적 전집(KGW)》(총 33권, 발터 데구르이트사), 이 전집은 괴테-실러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니체의 글들을 내용상의 침삭 없이 연도순으로 정리, 출판한 것이다.

책세상측은 이 가운데 철학분야의 저서 23권

을 올 2003년까지 완간할 계획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정동호)와 《유고Ⅷ(2)》(백승영)이 전집 출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나왔다. 외국 사상가의 전집 번역이 번번이 기획 단계에서 무산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출간된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

전집 출간을 계기로 확실해진 사실이 있다. 니체가 자신의 주저로 기획했던 《힘에의 의지》 출간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또 우리가 아는 《힘에의 의지》는 니체의 누이동생과 친구 가스트가

“니체의 미필유고와 저서 사이의 밀접한 관계 읽어내야 한다”

《니체 전집》 편집위원 백승영씨



정동호 교수(충북대), 이진우 교수(계명대), 김정현 교수(원광대)와 함께 《니체 전집》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백승영씨(36, 서강대 철학과 강사)를 만나 전집 출간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집 완간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아달라. 틀림없이 완간된다. 내년 초까지 나올 8권 정도 분량의 원고는 편집위원을 포함한 몇몇이 번역을 분담해서 많이 진행된 상태다. 앞으로 필

요한 인원은 독일에 나가 있는 연구자들이 돌아오면 말길 생각이다.”

그는 책세상 같은 용기있는 출판사가 많아져야 할 것이라며 질적으로 높아진 출판 풍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번역할 때 《니체 비판적 전집(KGW)》의 편집원칙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혔다.

“니체의 자필 원고에서 완벽하지 않은 구두법과 문법도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뒀

다. 그리고 역주를 아예 달지 않았다. 니체를 원형 그대로 소개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말미에 따로 해설을 마련했다.”

특히 미출간 유고의 존재를 강조했다. 그는 ‘유고’와 기명 저서의 관계를 상호보완과 해명의 관계라 명명한다.

“미출간 유고는 니체의 사유일기다. 기명 출간작은 이 사유일기에 독자를 위해 예술적으로 치장한 것이다. 유고는 출간작들의 발생 과정 및 때로는 숨겨져 있는 의도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적 성격이 짙다.”

이번 전집은 기존 번역서들과 다르게 용어 번역에 신경을 많이 썼다.

“허무주의를 극복한다는 의미가 강한 ‘übermensch’ 같은 경우 그동안 ‘초인(超人)’으로 번역돼 많은 오해를 낳았다. 니체를 메시아주의자로 이해하거나 심지어 니체를 초인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아예 ‘위버멘쉬’로 음역하기로 했다.”

백씨는 이미 번역된 니체 저서 대부분이 일어와 영어로 번역된 것을 중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의적으로 삭감’ 하면서 편집한 책이라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번에 번역된 《유고Ⅷ》의 제2권과 앞으로 나올 1, 3권은 니체가 《힘에의 의지》를 기획했던 1885년부터 1888년 사이에 쓴 노트들이다. 번역자 백승영씨는 이 노트에 담긴 사유들을 통해서만 ‘힘에의 의지’라는 사상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관점의 논문 수록한 학술서들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김상환 외, 민음사)과 《니체 이해의 새로운 지평》(성진기 외, 철학과현실사)은 여러 학자들의 니체연구 논문을 한데 모아놓은 책이다. 《니체가 뒤흔든...》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니체의 철학적 삶, 국내외의 연구사, 사상의 핵심 등이 실증적으로 정리돼 있다. 2부는 들뢰즈, 푸코, 데리다 등 니체에게 큰 빛을 지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얻은 사상가들을 다룸으로써 니체 이후 급변한 서양철학의 해석학적 지평을 보여준다. 마지막 3부에서는 니체와 탈근대, 미학, 사회비판 등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지평》은 성진기 교수(전남대 철학과)의 화합기념논문집을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에는 전국 니체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논리가 뽀뽀하게 늘어서 있어 만만치 않은 무게로 다가온다. 칸트와 헤겔 등 독일 근대철학자들과 니체를 비교 분석한 2부에서는 국내 학계의 니체연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5부에서는 불교, 장자철학, 일본 학계에서 본 니체 등 동양철학적 입장에서 니체를 분석한다. 또 이리가라이 등 해외 철학자들의 니체론을 번역, 수록함으로써 관점의 폭을 넓히고 있다.

번역서와 개인 저작들도 합류해

《니체와 니힐리즘》(하이데거, 박찬국, 철학과현실사)은 니체 해석을 통해 니힐리즘을 극복하려는 하이데거의 저서다. 하이데거는 니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니체 해석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이 책에서 하이데거는 ‘가치의 전도’ ‘힘에의 의지’ ‘동일자의 영원회귀’ 등 니체 철학의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들이 니힐리즘과 맺는 상호연관을 살핀다. 책의 마지막에서 하이데거는 니체가 칸트, 헤겔로 이어지는 서구의 형이상학을 뒤엎고자 했지만 결국 그 자장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수준에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가 볼 때 니체의 가치사상은 데카르트에 연원을 두고, ‘힘에의 의지’는 근대철학의 정점인 주체성의 형이상학이기 때문이다.

강영계 교수의 《니체와 예술》(한길사)은 예술철학, 음악철학, 비극론 등 니체의 미학을 현대 문화예술의 문제점과 관련시켜 성찰하고 있다. 동시에 니체 사상의 ‘폐쇄성과 독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정한 거리도 둔다. 또 니체가 그토록 부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서로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 상호보완의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한다.

《니체신드롬》(자크 로제, 이해은, 이끌리오)의 저자는 정신과의

“니체 예술론으로 문화주체를 구성한다”

《니체와 예술》의 저자 강영계 교수



강영계 교수(58, 건국대 철학과)는 니체 관련 서 번역과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니체—해체의 모험》(고려원)에 이어 최근에 나온 《니체와 예술》(한길사)은 니체에 관한 그의 두번째 저술이다.

— 집필 의도는?

“니체를 통해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을 말하고 싶었다. 디지털(기계)이 아날로그(인간적 가치)를 소외시키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문화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예술

관이 필요한지 성찰했다.”

— 니체의 예술관에 대해서 말해달라.

“니체의 미학은 합리성으로 굳어버린 전통미학을 해체한다. 왜소한 소재주의 예술과 형식미학은 니체에 따르면 가치없는 것들이다. 니체에게 예술은 힘에의 의지에서 솟아나는 에너지 그 자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반성적 삶의 형식이다.”

— 현대 예술에 관리사회적 특징과 획일적 상업주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관점만 있고 구체적 분석이 빠져 있다.

“실제 분석이 미흡한 점은 있다. 하지만 이번 저서에서는 니체의 동시대비판이 오늘날 후기산업사회에 나타난 예술상업주의를 해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원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주력했다.”

— 《힘에의 의지》를 많이 참고했는데, 왜곡본이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편집본이긴 하다. 그렇지만 책의 제목과 전반적인 체제는 니체가 직접 다 정해놓았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문제가 된다면 니체가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음에도 책이 출간됐다는 점이다.”

강교수는 니체의 미학을 통해서 삶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다. 이 책은 꼼꼼하게 기록된 니체의 병력 때문에 관심을 끄는 책이다. 저자는 니체의 선천적인 두통과 여기에서 비롯된 구토, 복통, 조울증, 안질 등의 병리학 적 상황이 니체 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니체의 사적인 서신에 나타나는 감정적 어휘, 기후나 성욕, 우정에 관한 생각들과 하나씩 연결시켜 나간다. 특히 후기의 니체가 느낀 디오니소스와 동질감은 문학적, 철학적 요구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우울증 뒤에 찾아오는 흥분상태의 영향이라는 주장은 꽤 흥미롭다.

이밖에 《니체와 철학》(질 들뢰즈, 이경신, 민음사), 《니체》(J.P. 스톤, 이종인, 시공사) 등도 나와 있어 니체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 강성민 기자